

『소백산과 남한강이 함께 빛은 절경, 그리고 단양』

지리교육과 2학년 문승일

1. 위치

〈 단양의 수리적 위치 〉

단	지 점	극 점		거 리
		동 경	북 위	
동단	영춘면 의풍리	128° 39' 15"	37° 03' 45"	동서간
서단	적성면 상원곡리	128° 13' 10"	37° 02' 05"	38.42km
남단	대강면 올산리	128° 22' 05"	36° 47' 55"	남북간
북단	영춘면 유암리	128° 23' 05"	37° 09' 20"	39.68km

출처: 단양군통계연보 (국회도서관)

단양은 충북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과 문경시, 서쪽으로 제천시와 경계하고 있는 3도 접경의 도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소백산맥을 따라 군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남한강이 어우러져 빛어낸 산자수명한 많은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2. 인문 · 자연환경

1) 지리적 특성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83.7%가 산악지대이고 경지면적은 11.2%에 불과하며 집단취락 및 도시지역만 일부의 분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었을 뿐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고, 주 수계는 남한강 상류로서 본 지역을 관통(연장 23.7km)하여 충주호를 형성하며, 지류로서 오대산에서 발원한 평창강 등이 소백산에서 발원한 죽령천, 단양천, 금곡천 등과 합류하여 남한강(충주호)으로 유입된다.

2) 남한강



〈 남한강 〉

출처: 네이버 뉴스

강원도 영월군으로부터 흘러들어 군내를 동서로 관류하며 남한강 동쪽에는 소백산맥이 뻗어 도솔봉(1,316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 용두산(1,015m), 도락산(960m)등 고봉을 일으키고, 연화봉과 도솔봉 사이의 안부에 죽령이 있다. 남한강 북쪽에는 태백산맥이 뻗어 금수산(1,016m) 등 준봉이 솟아 있다.

3) 기후

-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 연평균 기온 : 11.2℃
- 평균최고 : 17.7℃
- 평균최저 : 5.6℃
- 연간 총 강우량 1,195.8mm

4) 교통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이 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중앙고속도로, 중앙선과 병행하여 국도가 달려 영주, 제천, 영월, 충주로 연결되며 군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는 죽령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으로 중앙선, 중앙고속도로는 터널에 의해 고개를 넘고, 국도는 고개를 통해 열려있다.

3. 인구

단양의 인구는 1969년 93,948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3년에는 35,827명으로 1969년의 약 38%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50,000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36,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세대수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으로 인해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세대수의 감소가 인구의 감소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세대 자체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산업

단양의 산업을 2003년 논문을 토대로 한 사업체 수로 접근해서 알아보면, 사업체는 2003년 2,719개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27.4%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26.7%를 차지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이다. 이 두 업종이 단양 사업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3.3%, 제조업이 6.5%, 운수업이 6.2% 등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수의 이런 비중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국이나 충북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단양에서 27.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업체 수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단양의 수준이 전국 평균(20.3%)이나 충북 평균(22.8%)보다 높다. 그리고 2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은 전국 평균(28.1%)이나 충북 평균(27.4%)보다 조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고, 13.3%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전국 평균(10.7%), 충북 평균(12.1%)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 외에 단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6.5%)은 전국 평균(10.3%)이나 충북의 평균 수준(8.6%)보다 낮으며, 운수업(6.2%)도 역시 전국 평균(10.2%)이나 충북 평균(9.3%)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수를 전국 평균 수준이나 충북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광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국이나 충북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비해 전국 평균이나 충북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산업은 제조업, 운수업이 가장 두드러졌고,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단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63%, 충북 평균의 76%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 단양의 지형

1) 석회암

주로 방해석이나 아라고나이트 형태의 탄산칼슘(CaCO_3)으로 구성된 퇴적암이며 상당한 양의 탄산마그네슘(백운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부성분광물로는 점토·탄산철·장석·황철석·석영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석회암은 입상조각이며, 구성입자의 크기는 0.001mm부터 눈으로 보이는 크기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많은 경우에 입자는 현미경적 크기의 동물화석 껍질 조각으로 되어 있다. 초상이라 하는 산호초 같은 괴상 또는 동상의 암체를 이루는 경우와 지층 사이에 끼워져 층상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색은 대체로 백색 또는 회색인데, 불순한 것은 암회색이나 흑색 등을 띤다. 석회암 지대에서는 원료 지향성 공업인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다.

시멘트 공업은 가공 중에 중량의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게 된다. 따라서 단양에 가면 시멘트 공장을 볼 수 있다. 또, 석회암의 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시멘트 말고도 제철, 카바이드, 비료, 석재 등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2) 돌리네

돌리네는 석회암 지역에서 용식되어 이루어지는 깔때기 모양의 지형을 말한다. 용기한 석회암 지형에서 빗물이 땅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혹은 구조선을 따라 땅 속으로 스며들어 석회분을 용식해 생기는 지형으로, 석회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이다. 돌리네는 카르스트 지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3) 석회암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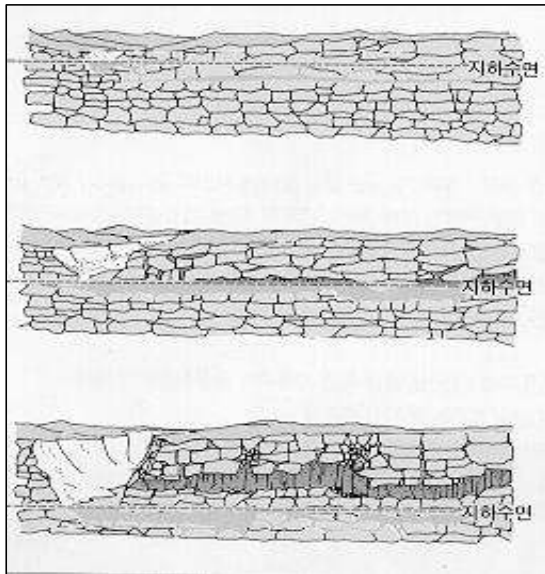
스며드는 물이 석회암을 깎아 동굴을 만들고 광물질 침전물로 동굴을 장식한다. 땅속으로 서서히 스미는 물이 석회암을 용식하여 동굴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 빗물이 흙으로 스며들 때 이산화탄소를 갖게 되어 석회암을 녹일 수 있는 약한 산성을 띤다. 그런 물이 바위 틈을 지나면서 점차 그 틈들을 크게 만들어 표면으로 뚫려 나오는 돌리네 수직 갭, 침니¹⁾, 수평 회랑²⁾을 만든다. 때때로 천장에서 암석들이 떨어져 구멍이 확대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이 지

1) 암벽에 난 굴뚝 모양의 세로로 갈라진 큰 균열.

2) 지정학에서 이르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통로를 일컫는다.

난 뒤에는 석회암층은 상호 연결된 방과 회랑들로 된 복잡한 미궁들로 별집처럼 뚫리게 된다.

스미는 물은 또한 정교한 형성물로 동굴을 장식한다. 물은 석회암을 용식할 때 용해된 광물질을 포함하게 되는데 천장에서 물방울로 떨어지거나 벽을 따라 얽은 막으로 흐르면서 물은 증발하고 광물질은 표면에 다시 침전된다. 종유석들이 천장에서 자라면서 내려오고 석순들이 바닥에서 자라면서 올라온다. 때때로 이들 둘이 만나서 석주가 된다. 커튼 같은 돌, 유석, 테라스 모양의 돌, 그리고 여러



다른 형태의 돌들이 석회동굴에 매혹적인 지하세계를 만든다.

물에 의한 동굴 생성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양의 이산화탄소를 녹인 산성의 지표수가 작은 물줄기를 이루어, 단층 등으로 생긴 석회암의 틈을 따라 흘러내린다(위). 그 뒤, 지하수면이 내려가면 지표수는 더 빨리, 더 깊숙이 석회암 속을 흘러내리면서 석회암을 녹인다(가운데). 지하수면이 더 내려가 석회암이 녹아나간 공간은 동굴로 드러나게 되고, 이후 석순·종유석 등 생성물이 생기면서 동굴은 완성된다(아래).

〈 물에 의한 동굴 생성과정 〉
출처 : 경북 문화관광해설사

6. 단양군의 관광자원

단양군은 여러 문화가 혼합된 결절지이다. 천혜의 관광지와 다양한 문화역사적 유물들을 단양군에선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양군의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이 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중앙고속도로, 중앙선과 병행하여 국도가 달려 영주, 제천, 영월, 충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광결절지대로서 새로운 문화와 관광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최영선 / 1995 / 자연사 기행 / 한겨레 신문사
- 국회도서관 / 2005/ 단양군통계연보 / 단양군

《 참고 사이트 》

- 단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danyang.go.kr>
- 단양관광포탈 <http://tour.dy21.net>
- 경북 문화관광해설사 <http://cafe.daum.net/kbtourst>